

최재은의 라이프 워크

July,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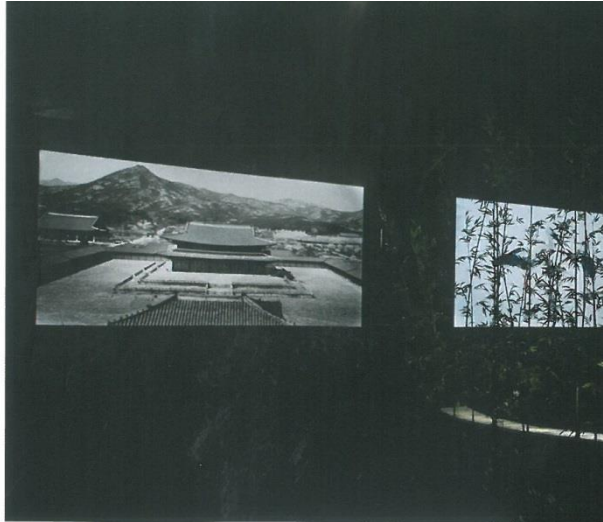
ARTIST

최재은의 라이프 워크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 전시에 최재은 작가가 건축가 시게루 반과 함께한 DMZ 프로젝트 '꿈의 정원'이 초청됐다. '꿈의 정원'은 최재은 작가의 몽상적인 도전과 불굴의 열정이 힘을 이룬 일생일대의 라이프 워크다.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 전시가 열리는 아르세날레 전시장 맨 끝 방 앞,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서양인 기자는 낯설하게 순간을 포착했고 건축학도인 듯한 동양 여자는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셀카를 찍었다. 시게루 반이 조력자로 나선 최재은 작가의 DMZ 프로젝트 '꿈의 정원(夢의庭園/Dreaming of Earth)'을 이번 건축전에 초청한 총감독 알레한드로 아라베나가 예고 없이 작가의 전시실을 찾았다.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난 참이었다. '혁신과 영감으로 건축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최고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2016 프리즈커 상 선정 이유 중) 아라베나, 일본 정보보다 먼저 재난 현장에 가기 위해 서너 시간 후에는 구마모토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인도주의적 건축가 시게루 반, 그리고 예술가로서 이 땅에 기여하기 위해 장대한 작업에 돌입한 아티스트 최재은. 건축과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세 사람의 조우는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라베나는 쇼트컷트에 마오 캐킷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을 최재은 작가에게 한 말인지, 이번 건축전에서 다른 전시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미학을 선사한 그녀의 전시를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를 뻔한 말로 엄지를 치켜들며 인사했다. "So Beautiful!"

해군의 힘이 막강했던 베네치아의 흔적을 간직한 오래된 무기고(아르세날레)의 어두운 내부는 최재은 작가의 몽상적이고도 강렬한 정치적 열원을 담은 작품 '꿈의 정원'에 제격인 장소였다. 입구에서 또 한 명의 프리즈커 상 수상자이자 시적인 건축으로 유명한 페터 Zumthor의 작품을 지나면 바다에 갈아 둔 흙의 고운 감촉이 느껴지고 큰 초록의 대나무가 이파리를 흔들며 시야를 가린다. 어둠에 땅막이 익숙해질 때에는 흙 냄새가 올라오고 어딘가 새소리도 들려온다. DMZ에 길이 15km, 높이 3-6m의 공중보행로와 13개의 정원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꿈의 정원' 프로젝트를 실패 크기의 1/200으로 축소하여 구현한 설치작품이 전시실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근처에 높이 20m의 바람의 탑을, 보행로 양 끝에는 DMZ의 멸종위기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종자은행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 아래 개미도 있어요. 실타를 왕창 뿌려놔서 거든. DMZ에 얽혀 있는 역사와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체를 여기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곳의 시간 덩어리를 펼쳐 보일 방법을 생각하다가 개미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웃음)"



1 DMZ 프로젝트 '꿈의 정원(夢의庭園/Dreaming of Earth)' 전시 현장
2 전시장과 면하 백길 앞에서 포즈를 취한 최재은 작가

최재은 작가는 1999년 판문점을 다룬 다큐

멘터리 <길 위에서>를 제작한 후 분단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2014년에는 매년 철원에서 개최되는 '리얼 DMZ 프로젝트'에 참여해 'No Borders Exists in Nature'라는 텍스트 설치 작업을 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처음 구상하게 됐다. 그런데 어떻게 공중이라는 마법 같기도 하고 허무맹랑하기도 한 생각을 했을까? "그냥 위에서 바라보고 있으니 공중이던 되겠다군요. (웃음) 셀 수 없이 많은 지뢰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또 65년간의 슬픔의 시간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활발하게 번식할 수 천 종의 동식물을 인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중에 보행로를 설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바로 시게루한테 전화를 했어요." 공통적으로 종이와 대나무를 빈번하게 소재로 사용했던 두 사람은 '꿈의 정원'을 위한 가장 상징적인 파트너가 되었다. (최재은은 1986년부터 세계 곳곳의 땅에 종이를 묻는 작업('World Underground')을 해왔고 시게루 반은 종이로 원통형의 구조물을 만든 임시 건축으로 유명하다. 또, 시게루 반이 즐겨 사용하는 대나무를 가지고 최재은 작가는 1990년에 건축가 김수근의 대표작 경동교회 옥상에 파격적인 설치작품('Synchronous')을 선보인 바 있다.)

5월 26일 열린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고된 여정을 짐작케 하는 무겁고 넓은 트렁크를 끌고 아르세날레에 도착한 시게루 반은 '꿈의 정원'을 "건축적인 작품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건축 재료로 콘크리트 대신 대나무를 선택한 데 대해서는 "힘의 역지 개념이 아닌 자연적 조화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후 식사 자리에서 시게루 반과 연신 기포가 귀엽게 이글거리는 프로세코 잔을 부딪히며 최재은 작가는 말했다. "우린 아주 심플하게 시작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생태계를 통해서 인간이 융화되고 그러다 보면 통일이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가능한 생각은 오직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작가들이 DMZ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풍부해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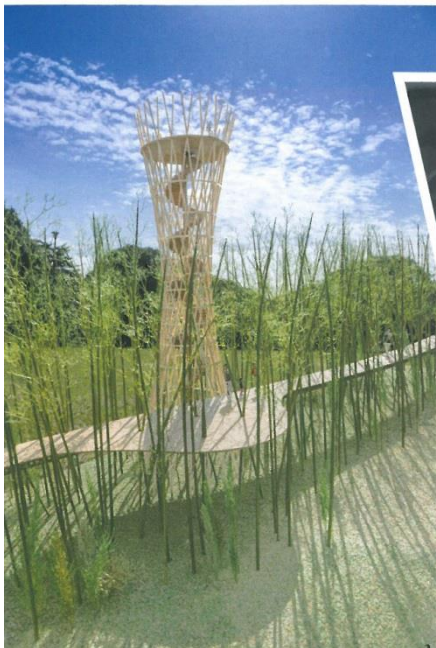


수목 통일의 날은 앞당겨질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힘들어지요.”

대부분의 관람객은 '꿈의 정원'에서 10여 분 넘게 자리를 뜰 줄 몰랐다. 특히 리얼전쟁, 알타회담, 포츠담회담 등 DMZ 생성 과정에 해당되는 기록 사진과 DMZ의 생태계 풍경 사진을 병치하여 보여주는 2-채널 비디오 작업은 시선을 거두기가 어려웠다. (비디오 작품의 상영 시간은 각각 동일하게 20분 30초이다.) 고흥의 정례식 장면과 날개를 펴고 날아가려는 백로라든가 포츠담회담 장에 모인 열강 대표들의 근엄한 모습과 독수리가 마치 한 편의 서사처럼 나란히 화면을 채웠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비극과 생태계의 순수한 생명을 대비시킨으로써 고발하고 싶었어요. 동북아시아의 한반도를 생취하기 위해서 열강들이 전쟁을 벌였고, 그로 인해 1950년 6월 25일에는 가슴 아픈 동족상잔이 일어나 아직까지도 분단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역사 안에 인류 최악의 모습이 모두 담겨있어요. 그런데 그 무대였던 DMZ 안에는 6천여 종의 생명들이 생존하면서 파라다이스를 이루어왔다는 것 자체가 인간사회에 대한 비판이자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봤어요.” 비디오 작품과 모형 양쪽에는 최재은 작가와 시계 루 반이 아기가자기하게 색연필로 그려 넣은 조감도 등을 볼 수 있는 '꿈의 정원' 프로젝트 기획안, 비무장지대에서 가져온 철책선, 정전협정 자료 등을 아카이브로 전시해놓았다. 최재은 작가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그리모은 역사적 배경에 대한 매우 친절한 주석인 셈이다. (특히 '꿈의 정원' 프로젝트가 이상적 공동체를 꿈꾸던 궁예의 '궁예도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제안 과도 오버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

이번 건축전에 출품하기 이전부터 '꿈의 정원' 프로젝트에 몰두해온 작가는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장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통일부와 UN에 'DMZ 공중정원' 제안서를 제출했고 왕대나무 10그루를 전남 담양에서 옮겨와 경기 수원에서 기르며 생태계 실험을 시작한 것. “이 프로젝트는 라이프 워크(Life Work)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일 겁니다. 우리는 참 성적이 급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연구를 거듭해서 아카이브를 만들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해나갈 생각이예요. 상대가 자연이고 살아 있기 때문이죠. 살아 있는 생명체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대화를 해야죠.”

에디터/ 안동선



3 '꿈의 정원' 1/30 축소 모형 이미지
4 시계루 반
5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설치 계획 스케치

